

외상후성장(PTG) 모델로서 이삭, 요셉 이야기

김 미 경*

논문초록

본 연구는 삶의 극적인 위기를 통해 변화된 외상후성장 가운데 어떤 영적인 성장과 변형이 주어진지를 살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외상의 심리적 충격과 외상후성장에 있어서 개인적인 믿음과 종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사례로 들어 살펴 보았다. 특히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성경인물의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생애 중요한 시기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적인 통찰과 성숙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경에는 삶의 우여곡절을 겪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경험적인 실례에도 잘 부합된다. 외상후성장에서 영적인 성장은 신체적인 성장과 심리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외상으로 인해 고통에 처해있는 내담자가 긍정적인 영적대처로 영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주제어: 외상, 외상후성장, 영적성장, 변형, 긍정적인 영적 대처

* 한영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교수

2011년 10월 31일 접수, 12월 12일 수정, 12월 23일 게재확정

I. 들어가는 글

개인이 인생의 쓰나미를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역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수용과 감당이 되지 않는 인생의 홍역을 ‘외상(trauma)’이라고 한다. 기독교 상담자가 임상 장면에서 곤혹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내담자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하며 신앙의 회의와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닌가 싶다. 외상은 이처럼 인생의 고통으로 작용하여 우울증과 불면증, 무기력을 호소하게 되며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 있는 탕자가 될 우려의 소지도 안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흔치 않은 것으로 치부됐던 외상 경험이 실제로는 적지 않는 비율로 경험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외국 선행연구(Breslau, Davis & Andreski, 1995, 재인용)에 따르면, 인구의 19-21%가 정상범주를 넘어선 외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일반인들이 인생에서 외상 사건에 노출될 확률은 78.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은현정 외, 2001, 재인용). 여기서 사용된 ‘외상’의 개념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생명의 위기 혹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여 통제력을 상실한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의미한다(Calhoun & Tedeschi, 2006). 외상경험이 누적되고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겪는 충격적인 사건이 증가할수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위험성은 심각하다(Yehuda et al., 2005; 1816). 외상은 사회공포증(Magee et al., 1996: 161), 경계선 성격장애(Van Der Kolk, Hostetler, Herron & Fisler, 1994), 신체형장애(Lamprecht & Sack, 2002), 해리장애(Ross et al., 1991), 섭식장애(Tobin, Molteni & Elin, 1995), 자살, 고위험행동, 약물남용(Marshall et al., 2001; Schinagle, 2002), 그리고 주요 우울증(Neria, Bromet & Marshall, 2002) 등의 심리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험으로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Nemeroff et al., 2006).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DSM-IV)에 의하면 외상은 자신 혹은 타인에게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 주는 사건으로 정의된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네 가지 증상범주는 재경험(re-experiencing), 회피(avoidance), 과각성(hyper-arousal)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마비

(emotional numbness)이다(Connor & Davidson, 2001; McNally, 2003). 즉 PTSD의 주된 양상은 위협적이었던 사고에 대한 반복적 회상이나 악몽에 시달리는 등의 외상사건을 재경험하고, 그러한 외상을 회상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려 하거나 회상되는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둔감화하고, 지속적으로 과각성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외상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외상이후 후유증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개인에 대해 병리적인 모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1990년대 이후 Tedeschi와 Calhoun(1995)에 의해 외상이후 개인의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외상후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명명하면서 병리적 관점에만 머물러 있던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상이나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불행한 경험 이후에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가 주어질 수 있다는 입장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상의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종교와 영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실례로 들어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적인 통찰과 외상후 영적성장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외상후성장의 개념

최근에는 고통 이면의 긍정적 변화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이를 ‘외상후성장(PTG)’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심리적 충격과 상처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인 외상을 겪은 후에는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뿐 아니라 외상 전의 적응단계를 능가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외상후성장이라고 한다(Tedeschi & Calhoun, 1995, 2004). 외상후성장은 자기지각과 대인관계, 인생관 영역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Tedeschi & Calhoun, 1996), 개인의 외상 이전의 적응수준을 넘어서는 변형(transformation)과 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Tedeschi & Calhoun, 1995, 2004). 즉 외상사건과 고균분투한 결과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으로(Maercker & Zoellner, 2004), 개인의 삶에서 극적인 위기가 긍정적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상후성장은 위협에 대하여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자기강화적 평가(self-enhancing appraisal)로서(Taylor & Armor, 1996, 재인용), 위협적 사건에 직면했

을 때 개인은 긍정적으로 왜곡된 신념을 보이는데, 이 현상을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고 한다. 개인은 충격적 외상을 경험할 때 외상 이전의 자기지각이나 세상에 대한 신념을 복구하기 위해서 인지적으로 적응하려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반응의 일환으로 외상에서 의미를 찾고, 통제력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느낌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일치하는 믿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외상사건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사건의 발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상으로부터 개인적 힘이나 성장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이양자·정남운, 2008: 6).

외상이나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불행한 경험 이면에 긍정적인 변화가 주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Linley와 Joseph(2004)는 외상후 긍정적인 변화를 ‘역경 후 성장(adverse growth)’이라고 지칭하였으며, Park(1996) 등은 스트레스-관련성장(stress-related growth)으로 표현하였다. Drescher와 Foy(2010)는 외상사건에서 비롯된 의미들은 적응유연성(resilience)과 성숙,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무기력,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교통사고, 암환자 등의 재난, 재해 피해자 및 생존자 또는 구조원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승태 외, 1997; 김희정 외, 2008; 신동균 외, 1997; 염병수, 2007; 이선미·김동인, 2000; 이옥주·박희경, 2009; 이지영 외, 2008; 최경숙, 2002; 최숙경, 2007). 즉 외상후성장 경험을 탐색한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적 적응과 개인적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의 성격적 특성, 심리 사회적 자원과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한 연구들로 국한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상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외상후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llizzi & Blank, 2006; Cardova et al., 2007; Manne et al., 2004), 외상경험과 신체적 변화를 다룬 연구에서는 외상의 희생자들이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서적으로는 우울과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었다(김현경 외, 2008: 29).

Hunt와 Evans(2004)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소인 중 특히 정서지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 중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PTSD 증상을 덜 경험하고 이후에 효과적으로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상후성장과 대처전략의 관계를 보여준 연구로는 여성유방암 환자들에게 집단치료로써

인지행동 스트레스 관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의 외상후성장과 낙관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Antoni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상후성장’을 극적인 인생의 위기와 투쟁한 결과 개인의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을 넘어선 실제적인 긍정적인 삶의 변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필자는 외상후성장을 어둡고 암울한 현실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개인의 대처노력의 결과로서, 삶에 대한 감사와 개인의 영성과 실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III. 외상후 영적 성장

1. 종교적 영성과 외상후성장

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외상후성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는 영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폭넓은 성장개념으로 볼 수 있다(Lauffer & Solomon, 2006: 430; Linley & Joseph, 2005: 264; Maercker & Herrle, 2003: 580). 그러므로 최근에는 회복 결과인 외상후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대해 종교와 영성의 특정한 역할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Denney et al., 2011; Gottheil & Groth-Marnat, 2011; Hall et al., 2010; Lauffer & Solomon, 2006; Linley & Joseph, 2005; Maercker & Herrle, 2003).

종교의 구성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극히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나타난 연구결과에 대해 Ross와 그의 동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Ross et al., 2009: 454-55). 먼저 종교와 심리적인 긍정적 적응은 매우 상관이 높다는 것이다(Crawford et al., 1989). 종교는 자기를 유지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Myers와 Diener(1995)의 연구에서도 종교와 안녕감(well-being)의 정적상관이 범문화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종교적인 대처와 자원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보여주고 있다(Handal et al., 1989; Mosher & Handal, 1997). Koenig(2001)은 종교와 심리적 적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 종교적인 신념과 행위가 심리적인 안녕(well-being)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외상과 스트레스에 대한 종교적인 대처 역시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Bickle et al., 1998; Carver et al., 1989; Crawford et al., 1989; Ross et al., 2009), 종교적인 대처 기제를 밝히는 것은 심리적인 건강과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질병에 걸린 많은 개인들은 종교적인 대처를 보였는데(Koenig, Larson & Larson, 2001: 352), 이는 실제로 많은 외상경험의 피해자들이 종교적인 지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Bonanno, 2004: 20; Spouse, 1999: 394). 그러나 종교적인 대처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는 심리적인 고통을 덜어주는데(Pargament et al., 1998: 710; Sowell et al., 2000: 73; Tix & Frazier, 1998: 411), 예를 들면 기도와 개인의 종교적 신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외상경험의 희생자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통과 우울증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i et al., 2005: 763; Schiff, 2006: 2301; Shaw et al., 2005: 1). 더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종교적 대처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는지, 매주 교회출석과 기도, 그리고 종교적 활동(외상의 희생자를 돕기 위한 기부 행위) 등의 긍정적인 영적 대처 전략은 긍정적인 영적 결과와 관련성이 높았다(Meisenhelder & Marcum, 2009: 55). 또한 긍정적인 종교대처는 의학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신체와 정신건강 뿐 아니라(Koenig et al., 2001; Pargament, Koenig, Tarakeshwar & Hahn, 2004: 713), 대규모의 흉수로부터 살아남은 외상생존자들의 회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Smith et al., 2000: 169).

반면에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의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사태들은 모두 악마가 만든 것이야’와 같은 반응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시키며 정신건강을 오히려 해친다(Fitchett et al., 1999; Mickley et al., 1998; Pargament et al., 1990; Pargament et al., 1998; Pargament et al., 2001). 즉 부정적인 영적 대처는 높은 스트레스 증상들과 심각한 우울증을 야기 시키게 된다는 것이다(Bradley et al., 2005: 685; Watlington & Murphy, 2006: 837; Witvliet et al., 2004: 269). 이처럼 극단적인 외상이나 상실을 경험 한 후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종교와 영성의 작용은 지대하다. 특히 사별과 같은 외상을 겪은 후 적응과정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의 역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Wortman &

Park, 2008: 704). 개인이 위기나 고통에 처했을 때 외상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종교생활, 종교적 믿음, 성직자와의 따뜻한 애착관계 등의 기체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Bogenschneider, 1996: 128-32; Werner, 1989: 72).

2. 외상후성장(PTG) 모델로서 이삭, 요셉 이야기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상사건 중에서도 죽음의 위기를 통해 외상후영적 성장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의 외상경험과 심리적, 영적 반응들을 통해 나타난 외상후성장의 모습을 살펴보고서 외상후성장을 가져온 영적인 잠재요소들을 추출하는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1) 이삭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최대 외상은 아마 청년기 시절의 경험일 것이다. 어느 날 이삭이 곤하게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길을 재촉한다. 아들 이삭은 노년의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난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자신을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지고 가는 어린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사흘 길(창세기 22:4)을 가면서 이삭은 몹시 궁급했다.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모리아산에 거의 도착할 무렵 이삭은 드디어 입을 열어 아버지께 묻는다(창세기 22:7). 아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대답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비통하기 그지없었다. 아마 사흘 길 동안 한시도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이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은 다음 자신을 결박하려 하자 아들은 비로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이삭은 잠자코 그 결박을 받았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꿈쩍없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외상을 경험한 동시에 철저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미 수풀에 뿔이 걸려 버린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창 22:13).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액션을 분명히 경험한 후 이삭의 생애

는 결정적으로 변형을 겪게 된다. 아마도 이삭은 모리아산 사건 직후에는 한동안은 그 충격적인 내용이 자동적으로 반추되어 괴로웠을 것이다. 대개 외상과 관련된 자동적인 반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은 외상 이전의 도식을 재건하려는 시도이므로(이양자·정남운, 2008: 5), 외상후성장에서 통과의례의 과정인 것이다.

이삭은 이미 청소년기에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므로 이후 그의 삶은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는다. 이삭은 힘겨운 생활사건을 만날 때마다 모리아산의 외상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도적인 반추(intentional rumination)를 함으로써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이삭은 청년시절에 겪은 외상 당시의 심리적 충격을 반추하면서 이후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며 극복할 수 있는 내재적인 종교성향(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¹⁾을 지니게 된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불레셋 사람이 이삭의 우물을 막거나 강탈한 사건에 대한 이삭의 반응에서 잘 나타나 있다(창세기 21:25-26; 26:15, 18-21).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전승들이 함께 모여 있다. 이삭 일행은 기름진 땅에서 이주한 후 삶의 터전을 잡는 일로 우선적으로 우물을 판다(창세기 26:19, 26:25b). 그들이 판 곳에서 샘의 근원을 얻은 것은 야웨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예비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유목 혹은 반유목적 상황에서 ‘우물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고 여긴다. 이처럼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삭을 수동적으로 축복을 받는 인물(창세기 24장, 26장)로 묘사하고 있지만 어떠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삭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의 수동적인 성격을 표현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모든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성서신학자들은 이삭을 단지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교량역할을 맡은 인물로 이해하기도 한다(Speiser, 1982: 182, 재인용). 그러나 기스펜(Gispén, 1982: 127-128, 재인용)에 따르면, 이삭은 하나님의 현현과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창세기 28:13, 31:42, 32:9, 46:1) 또한 약속의 땅이 언급되어질 때마다 그의 이름이 같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다(창세기 28:13-15, 35:9-13; 출애

1) 내재적인 종교성향(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은 종교가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며, 종교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려는 종교 성향을 뜻한다. 반면에 외현적인 종교성향(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은 종교를 사회적 유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굽기 2:24, 6:4-5, 32:13; 신명기 7:7-9). 성서전승들 역시 이삭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부르고(예레미야 33:26),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아모스 7:16)고 하면서, 이삭을 이스라엘과 거의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다(아모스 7:9). 또한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난다(시편 105:9-10). 그러므로 이삭의 이야기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특히 이삭의 결혼 장면은 창세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은(창세기 24장) 가볍게 간과할 일이 아니며, 그의 축복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특히 창세기 26장 12절의 이삭에게 임한 백배의 수확과 결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26:24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이삭과 함께 해 주신다는 위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으로 그의 백성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후 이주의 천막을 치고 터전을 잡으려고 또 우물을 판다. 이처럼 하나님의 현현과 제단을 쌓은 후 이삭은 우물을 파게 되면 생명의 젓줄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과 이주의 삶에서 샘의 확보는 생존의 보장책으로써 한 즐거이의 빛과 같은 구원인 것이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이는 그의 결혼이야기인 24장보다 훨씬 능동적인 모습을 그려 주고 있다. 창세기 26장에 대해 Fokkelman(1975: 115, 재인용)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진시효과를 주는 자료(demonstration-material)’라고 명명한다. 이는 아비멜렉의 고백에서 잘 나타난다. ‘야웨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창세기 26:28)는 것과 ‘이삭은 야웨께 복을 받을 자’(창세기 26:29b)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야웨께서 이삭에게 항상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어 삶의 터전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옆에서 목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방사람인 아비멜렉에 의한 평가는 이삭이 야웨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를 받는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축복의 장으로써 축복의 앞뒤 맥락에서 우물의 터짐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 ‘여호와 이레’는 이삭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느낌, 즉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 있으며 개인과 서로 상호 작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다(김난예, 2001). 하나님 이미지는 인간 속에 있는 의식적이

고 무의식적인 측면을 지닌 시각적, 지각적, 감정적, 개념적 요소를 담고 있는 역동적이고 정서적인 표상이다(Saur, 1992, 재인용). 즉 한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 지닌 개념과 이미지는 그의 심리적 상태나 행동반응,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님 표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의 인생에 의미 있게 혹은 적어도 고통스러운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애 사건들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 영향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청년시절 이삭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표상은 흉년에도 타격이 없었으며, 농업에도 축복을 받았고, 우양은 번성했으며, 파는 곳 마다 우물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떤 악재가 겹쳐도 약속의 땅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며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이삭의 삶은 이스라엘이 결국 회귀해야 할 중심을 이루고 있다. 창세기 기자는 야곱과 요셉,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떠나지 않았던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창세기 47:30; 49:29; 50:13, 24-25).

이삭의 이야기는 이처럼 순종과 축복의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중요 모티브는 이삭의 절대적 신앙 즉, 청년기에 경험한 모리아산에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경험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삭의 축복을 전시해 주고 있는 창세기 26장은 평온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임하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순종과 믿음이 수반되면 반전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흉년이 들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이삭의 순종적인 행동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언제나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족장가운데 가장 수동적이라고 비판받던 인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렸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이를 풀 수 있는 단초 중의 하나가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순종했던 결과, 어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는가 이삭의 축복의 생애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축복받은 자의 삶은 차분하며 간결하고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며 많은 부분 수동적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있기에 유약해 보이지만 확신에 가득찬 삶이 가능해진다(김재구, 2010: 24). 외상 중에서 가장 극한 경험이 자신의 죽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모리아산의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로서 오히려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더 장수를 누린다.

모태신앙이었던 이삭은 그동안 아버지를 통해 귀로만 들어 왔던 하나님의 경험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인생의 위기인 외상경험이 하나님과 만남의 접점이 된 것이다.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였다(창세기 22:14). 어떠한 순간이나 상황에도 이삭에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먼저 준비해 놓으시는 분으로 각인(imprinting)되었다. 생애 전반부에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신병리에서 외상 경험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고 본다. 계속 동일한 상황이나 비슷한 단서가 주어지면 외상경험 당시와 유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삭을 보면 불안과 공포 반응 보다는 오히려 임재하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간접 경험한 모태신앙이 해체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모리아산 사건의 결과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재해석 할 수 있는 인지적, 영적인 틀을 제공하게 되며, 이삭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모티브가 된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그동안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분리 개별화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변형(transformation)된 모습을 갖게 된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충격적인 경험을 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끔직한 경험은 이후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신의학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 오히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아픔과 파편화된 자아상을 가진 내담자의 외상경험은 오히려 희미한 존재로서 인식되어 온 하나님을 분명히 뵈옵는 최고의 순간이 된다. 기독교상담자는 이를 인지하면서 내담자의 외상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게 될 수 있는 모티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외상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내담자들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는 반응을 한다. 이때 상담자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방으로 저들을 안내해야 한다.

(2) 요셉

요셉의 생애는 연속되는 상처와 반복적인 아픔으로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성격을 띤다(Herman, 1992; Kilpatrick, 2005: 379; Resick et al., 2003: 351-55). 노년이 된 아버지 야곱의 남다른 총애로 인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경험하였다. 급기야는 형들의 모략으로 웅덩이에 빠지게 됨으로써 꿈쩍없이 웅덩이에서 질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17세의 소년으로서 감내하기에는 혹독한 시련이었다. 여기서 웅덩이는 저승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셉의 자아분열을 가져올 만큼 압도적인 외상경험이 된다. 건트립(Guntrip)에 따르면 상처 입은 자아는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인 자아로 분열되며 나아가 리비도적 자아는 최후의 분열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리비도적 자아의 일부가 퇴행한 자아(regressed ego)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퇴행한 자아는 더 이상 대상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죽음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 요셉의 현실세계는 반복적으로 죽음의 그림자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셉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됨으로써 머나먼 이국땅에서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함으로써 극심한 공포를 겪게 된다. 삼시간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경험은 익숙했던 것과의 작별을 고향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아픔이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어린 시절에 상실하고(창세기 35:19) 이복형제들과의 갈등의 구도 속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야곱마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오면서 요셉의 모든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유일한 자기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적 반응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다. 꿈을 통해 형성된 요셉의 이상적인 자기(ideal self)와 애굽의 노예라는 현실적 자기(real self)는 상당한 간극(gap)이 있다. 이 양자간의 괴리가 클수록 부적응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 로저스(Rogers)의 입장인데 이 도식에 예외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 아닌가 싶다.

기독교상담자는 절망에 처하여 낙심을 하는 내담자에게 요셉의 삶의 역경을 통한 접근으로 내담자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꿈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내담자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의 도구라는 사실을 상담자는 내담자와 나눔으로써 무너

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만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함께 견뎌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요셉은 한동안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얻긴 했으나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강간 미수범으로 오인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요셉은 형들의 학대와 배신으로 인해 인신매매범에게 혈값으로 팔려가고 또 다시 강간미수범으로 죄수가 되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복합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연속적인 외상경험들, 혹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외상경험들을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라고 한다(Herman, 1992). 단순 외상 사건들은 주로 불연속적이거나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Herman이 제안한 복합 PTSD는 아동기 학대나 가정 폭력과 같이 반복적으로 지속된 외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여 정서 조절이 어렵다거나, 자기-파괴적 혹은 충동적 행동을 보이거나 대인관계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안현의, 2007: 109).

요셉은 복합외상의 경험으로 인해 혹독한 삶의 고통(distress)은 물론이거니와 내적 통제감의 상실과 애굽이라는 타국에서 자국문화의 상실을 경험한 이주자로서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요셉의 외부현실은 끊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의 연속으로 요셉을 겁에 질린 내면의 아이(the child within)로 위축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이 겁에 질린 아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계속 세상과 접촉한다. 기독교상담자는 내면의 아이가 현실과 만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이 되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이 세상이 살만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잘 반응해 주어야 한다. 내담자가 건강한 인격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상담자가 반응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참자기(true self)가 다시 살아나도록 조력해야 한다.

결국 어린 요셉은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탄생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 적신으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글로벌 인재로 재탄생하게 된다. 죄수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외상 사건들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하게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옥중에서 애굽의 두 관원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애굽이라는 대국의 마인드로 자신을 재조직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전개되는 아픔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영적 반응으로 대처함으로써 앞날을 준비했다. 당시 애굽의 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연령이 만 30세 였다고 한다. 요셉은 2년 동안 애굽의 감옥에서 30세

를 채우면서 바로 왕의 꿈 해석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으며 오히려 유익했던 일이다. 결국 이렇게 반복되는 요셉의 외상으로 인한 고통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첩경이 된다(창세기 41:41). 애굽의 왕은 요셉에게 그의 전권을 이양함으로써 요셉은 전무후무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애굽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애굽의 토지법을 정비하는 글로벌 인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창세기 47:26). 이와 같은 요셉의 정치적 감각은 억울하게 옥중에 갇혔을 때 애굽의 관원들로부터 익히게 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은 이제 어린 시절 제일 아꼈던 부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보면서 형들과의 재회를 준비하며 화해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분명 아버지와 베냐민을 몹시 그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도 가족들에게 바로 소식을 알리지 않고 9년(7년 풍년, 2년째 흉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창세기 45:6) 형들이 제발로 애굽 땅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들의 심경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살핀다. 요셉은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 놓은 후 은잔을 훔쳐 간 사람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이집트에 남아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형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베냐민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 그럼으로써 과연 형들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행했던 가혹한 처사를 뼈아프게 느끼며 자책하고 있는지를 요셉은 주시한다. 요셉이 22년간 얼마나 아버지와 동생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겠는가.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실체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

한편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지 않고 이스라엘식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창세기 41:50-52). 요셉은 불연속적이고 단일한 외상 그 이상의 아픔과 충격을 경험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긍정적인 영적대처(positive spiritual coping)를 함으로써 형들을 안심시킨다(창세기 45:5). 이는 복합 PTSD의 전형적인 복수나 분노의 반응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그가 겪은 사건의 의미를 영적인 통찰로 해석함으로

써 변형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애굽의 문화나 우상으로 부터 가족들을 보호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변함없는 신실함을 지키고 있다. 이처럼 요셉은 영적인 통찰과 대응으로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였다. 결국 요셉은 자신을 학대한 형들과 화해를 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열두지파의 연합체인 이스라엘을 가능케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요셉이 야웨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을 지켜 간 것을 이방사람 보디발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창세기 39:3). 보디발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화로 있던 요셉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애굽의 2인자로 등극함으로써 상황이 역전되어 보디발 자신이 이제 요셉의 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그는 어땠을까? 보디발의 반응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보디발은 재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생애 초기에 내면화함으로써 파국적인 급작스러운 환경의 소용돌이를 오히려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김미경, 2011: 86). 요셉처럼 정신적 외상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은 상처와 충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맞서며 고군분투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체험할 수 있다(Tedeschi, Park & Calhoun, 1998).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요셉의 꿈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기억하신다.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이 인간의 신음과 고통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담자와 반드시 나누어야 할 것이다.

IV. 나가는 글

본 연구는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내재해 있는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외상후 영적인 성장 측면을 살펴보았다. 외상이라는 현실의 쓰라린 상처를 여린 손으로 헤쳐나감으로써 잔혹한 굴레에서 벗어나 영적 성장을 경험한 사례들을 성경의 이

삭과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간은 외상을 통해 자신의 취약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실존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면서 건설적이고 자기 변형적인 요소가 증가하게 된다. 외상으로부터 의미를 찾는 과정은 심리적인 고통이 따르지만, 더욱 풍부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준다(Calhoun & Tedeschi, 2006, 재인용). 이는 단순히 고통의 완화보다는 성장을 촉진시켜 장기적인 안녕감의 증진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에는 심리상담과 임상에서 영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Walsh, 1999: 3-5), 영적 안녕의 구조를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Paloutzian & Ellison, 1982, 재인용). 수직적 차원은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영적 안녕으로 종교적 안녕(religious spiritual well-be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이 질병과 고통, 상실 등과 같은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 수평적 차원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 및 목적에 관계되는 것으로 실존적 안녕(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 가치, 생활양식을 통하여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영적 안녕에 대한 두 차원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수직적 차원인 종교적 안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미흡한 편이다. 기독교상담은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종교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인 관계를 통해 영적인 안녕감을 향유할 수 있는데 그 동기는 대개 외상경험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예기치 못한 절망의 늪에 빠질 때 절대자를 의식함으로써 그 분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 온갖 부정적인 일과 상처, 고통으로부터 온전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성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외상 후성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므로 실의에 빠진 내담자를 조력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자신의 구원 경험과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들이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있어서 자양분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김미경, 2005: 143).

최근에는 외상후성장을 심리치료 장면에서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Bonanno, 2004, 재인용), 기독교상담은 외상후 영적인 성장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내담자의 종교성과 심리적인 긍정적 적응이 매우 상관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Crawford et al. 1989: 16).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역경은 단지 부정적인 정서나 문제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삶의 고난이 강인함과 긍정적인 힘, 절대자와의 극적인 만남을 가져올 수 있음에 기독교상담자는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외상의 부정적 영향력은 개인의 종교적 믿음이라는 보호적 적응기제²⁾에 의해 완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좋은 실례가 된다. 기독교상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발휘될 수 있는 영적인 적응기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종교생활과 종교적 믿음 등이 외상이후의 충격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내담자들의 적응을 조력함에 있어 기독교적인 개입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외상의 상처와 충격의 직접적 영향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상담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이 중반부에 이르게 되면 내담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됨으로써 신앙과 믿음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는 태도로 변화되는 것을 기독교상담자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 내담자는 성숙해짐으로써 ‘긍정적 비교’의 인지적 양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보다 못한 상태에 있는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감사와 위로를 얻는 삶에 대한 낙관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또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종교적인 지원을 추구’하는 모습을 띄는데 이는 영적, 종교적 관심의 증가와 추구, 삶에 대한 감사의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외상경험은 단순히 PTSD의 상흔으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에 의해 이삭과 요셉의 경우처럼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는 외상후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종교적인 승화와 추구양식을 보인다(최승미·안창일, 2007: 257; Calhoun et al., 2000: 521)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시점임을 확신해야 한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외상과 시련 속에서 찾아옴을 무수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다양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인물들을

2) 보호요소는 외상과 같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이다.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가뭄의 한복판에서, 형들의 학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난다. 인생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은혜의 꽃은 피어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난예 (2001). “하나님 표상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경 (2005). “기독교상담자의 정체감 형성과 영향요인.”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0. 141-170.
- 김미경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17. 74-100.
- 김승태·김병로·홍경수·정유숙·유범희·김도관 (1997). “삼풍 사고 생존자들에게서의 급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빈도, 예측인자, 증상변화에 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6(3). 475-486.
- 김재구 (2010). “이삭 이야기의 신학적 재조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1. 5-30.
- 김현경·엄진섭·전우택 (2008).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 『사회복지연구』. 39. 29-56.
- 김희정·권경혜·김중남·이란·이건숙(2008).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 후성장 관련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781-799.
- 신동균·이준상·이민수·최윤경(1997). “삼풍 사고 생존자들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고통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36(4). 612-619.
- 안현의 (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염병수 (2007). “사상사고 경험 기관사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은현정·이선미·김태형 (2001). “일 도시지역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역학 조사.” 『신경정신의학』. 40(4). 581-591.
- 이선미·김동인 (2000). “교통사고 후 신체손상환자의 만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발생빈도, 증상변화, 예측인자에 대한 전향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9. 797-808.
- 이양자·정남운 (2008).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 이옥주·박희경 (2009). “사상사고 경험 기관사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0-81.
- 이지영·문나영·홍현기·현명호 (2008). “소방대원의 외상경험, 정서 지능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25-39.
- 최경숙 (2002). “일부산업재해 환자들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 최숙경 (2007). “지하철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사상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 최승미·안창일 (2007). “근육병 환자 어머니의 외상후성장 및 삶의 질, 스트레스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연차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56-257.
- Ai, A. L., Tice, T. N., Peterson, C., & Huang, B. (2005). Prayers, spiritual support, and positive attitudes in coping with the September 11 national crisis.

- Journal of Personality*, 73, 763-791.
- Antoni, M. H., Lehman, J. M., Klibourn, K. M., Boyers, A. E., Culver, J. L., & Alferi, S. M. (2001). Cognitive-behavioral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 decrease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enhance benefit finding among women under treatment for early-stage breast cancer. *Health Psychology*, 20, 20-32.
- Bellizzi, K. M. & Blank, T. O. (2006). Predicting posttraumatic growth in breast cancer survivors. *Health Psychology*, 25, 47-56.
- Bickle, C. O., Ciarrocchi, J. W., Sheers, N. J., Estadt, B. K., Powell, D. A., & Pargament, K. I. (1998). Perceived stress, religious coping styles, and depressive affect.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7(1), 33-42.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 Bradley, R., Schwartz, A. C., & Kaslow, N. J. (200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women with a history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uicidal behavior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religious cop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 685 - 696.
- Bradshaw, M., Ellison, C. G., & Marcum, J. P. (2010). Attachment to God, image of God,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nation wide sample of Presbyterian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ical of Religion*, 20, 130-147.
- Breslau, N., Davis, G. C., & Andreski, P. (1995). Risk factors for PTSD related traumatic events: Prospectiv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3, 529-535.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 521-537.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6).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ardova, M. J., Giese-Davis J., Golant M., Kronenwetter C., Chang V., & Spiegel D. (2007). Breast cancer as trauma: posttraumatic stressd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Medicine Settings*, 14, 308-319.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onnor, K. M., & Davidson, J. R. T. (2001). SPRINT: A brief global assess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ternational Clinical Psychopharmacology*, 16, 279-284.
- Crawford, M. E., Handal, P. J., & Wiener, R.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mental health/distres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1(1), 16-22.

- Denney, R. M., Aten, J. D., & Leavell, K. (2011). Posttraumatic spiritual growth: a phenomenological study of cancer survivor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4(4), 371-392.
- Drescher, K., & Foy, D. W. (2010). When horror and loss intersect: Traumatic experiences and traumatic bereavement. *Pastoral Psychology*, 59(2), 147-158.
- Fitchett, G., Rybarczyk, B. D., DeMarco, G. A., & Nicholas, J. J. (1999). The role of religion in medical rehabilitation outcomes: A longitudinal study. *Rehabilitation Psychology*, 44(4), 333 - 353.
- Fokkelman, J. P. (1975). *Narrative art in Genesis: Specimens of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is, studia semitica neerlandica*. Assen: Van Gorcum.
- Gispén, W. H. (1982). "A blessed son of Abraham." W. C. Delsman et al. ed. *Von Kanaan bis Kerala Festschrift für prof. J. P. M. von der Ploeg O. P.*, AOAT 211.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123-129.
- Gottheil, E. A., & Groth-Marnat, G. (2011). A grounded theory study of spirituality: Using personal narratives suggested by spiritual imag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0(2), 452-463.
- Hall, M. E. L., Langer, R., & McMartin, J. (2010). The role of suffering in human flourishing: Contributions from positive psychology, theology, and philosoph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8(2), 111-121.
- Handal, P. J., Black-Lopez, W., & Moergen, S. (1989).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Black women. *Psychological Reports*, 65, 971 - 975.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 Hunt, N., & Evans, D. (2004). Predicting traumatic stress using emotional intelligenc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 791-798.
- Kilpatrick, D. G. (2005). A special section on complex trauma and a few thoughts about the need for more rigorous research on treatment efficacy, effectiveness, and safet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 379-384.
- Koeing, H. G. (2001). Religion and medicine II: Religion, mental health, and related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31, 97 - 109.
- Koenig, H. G., Larson, D. B., & Larson, S. S. (2001). Religion and coping with serious medical illness. *The Annals of Pharmacotherapy*, 35(3), 352-359.
- Lamprecht, F., & Sack, M. (2002).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revisited. *Psychosomatic Medicine*, 64(2), 222-237.
- Laufer, A., & Solomon, Z. (2006). Posttraumatic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Israeli youth exposed to terror incidents. *Journal of Social & Cultural Psychology*, 25, 429-447.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11-21.
- Linley, P. A., & Joseph, S. (2005). The human capacity for growth through

- adversity. *The American Psychologist*, 60(3), 262 - 264.
- Maercker, A., & Herrle, J. (2003). Long-term effects of the Dresden bombing: Relationships to control beliefs, religious beliefs, and personal growth.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6(6), 579-587.
- Maercker, A., & Zoellner, T. (2004). The Janus face of self-perceived growth: Toward 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15, 41-48.
- Magee, W. J., Eaton, W. W., Wittchen, H. U., McGonagle, K. A., & Kessler, R. C. (1996). Agoraphobia, simple phobia and social phobia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59-168.
- Manne, S., Ostroff, J., & Winke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after breast cancer: Patient, partner, and couple perspective. *Psychosomatic Medicine*, 66, 442-454.
- Marshall, R. D., Olfson, M., Hellman, F., Blanco, C., Guardino, M., & Struening, E. L. (2001). Comorbidity, impairment, and suicidality in subthreshold PTS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467-1473.
- McNally, R. J. (2003). Progress and controversy in the stud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229-252.
- Meisenhelder, J. B., & Marcum, J. P. (2009). Terrorism, post-traumatic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piritual outcom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48(1), 46-57.
- Mickley, J. R., Pargament, K. I., Brant, C. R., & Hipp, K. M. (1998). God and the search for meaning among hospice caregivers. *The Hospice Journal*, 13(4), 1-17.
- Mosher, J. P., & Handal, P. J.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449-457.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emeroff, C. B., Bremner, J. D., Foa, E. B., Mayberg, H. S., North, C. S., & Stein, M. B. (2006).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state-of-the-science review.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0, 1-21.
- Neria, Y., Bromet, E. J., & Marshall,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exposur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32, 1479-1480.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D. Perman(Ed).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224-236). New York: John Wiley & Sons.
- Pargament, K. I., Ensing, D. S., Falgout, K., Olsen, H., Reilly, B., Van Haltsma, K., et al. (1990). God help me: (I) Religious coping efforts and predictors of

- the outcomes to significant negative life ev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793-824.
- Pargament, K. I., Smith, B. W., Koenig, H. G., & Perez, L. (1998). Pattern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with major life stressor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 710 - 724.
- Pargament, K. I., Koenig, H. G., Tarakeshwar, N., & Hahn, J. (2001). Religious struggle as a predictor of mortality among medically ill elderly patient: A 2-year longitudinal study.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1(15), 1881-1885.
- Pargament, K. I., Koenig, H. G., Tarakeshwar, N., & Hahn, J. (2004). Religious coping methods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physical and spiritual outcomes among medically ill elderly patients: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6), 713-730.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 71-105.
- Resick, P. A., Pallavi, N., & Griffin, M. G. (2003). How well does cognitive-behavioral therapy treat symptoms of complex PTSD? An examination of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within a clinical trial. *CNS Spectrums*, 8, 351-355.
- Ross, C. A., Miller, S. D., Bjornson, L., Reagor, P., Fraser, G. A., & Anderson, G. (1991). Abuse histories in 102 cases of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36, 97 - 101.
- Ross, K., Handal, P. J., Clark, E. M., & Vander Wal, J. S.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religious coping: religious coping as a moderator between religion and adjustment.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48(4), 454-467.
- Saur, M. S., & Saur, W. G. (1992). Image of God: A study of psychoanalyzed adult. In M. Finn and J. Gartner. Westport(Eds.). *Object relations theory and religion: Clinical Applications*. Connecticut: Preager.
- Schiff, M. (2006). Living in the shadow of terrorism: Psychological distress and alcohol use among religious and non-religious adolescents in Jerusalem. *Social Science & Medicine*, 62, 2301 - 2312.
- Schinagle, M. (2002). Recurrent suicide attempts, self-mutilation, and binge/purge behavior: A case report.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0, 353-356.
- Shaw, A., Joseph, S., & Linley, P. A. (2005). Religion, spirituality and posttraumatic growth: A systematic review.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8(1), 1-11.
- Sowell, R., Moneyham, L., Hennessy, M., Guillory, J., Demi, A., & Seals, B. (2000). Spiritual activities as a resistance resource for women with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Nursing Research*, 49, 73-82.
- Speiser, E. A. (1982). *Genesis*, ABC 1. New york: Doubleday.
- Spouse, L. (1999). The trauma of being a refugee. *Medicine, Conflict, and Survival*, 15, 394-403.
- Taylor, S. E., & Armor, D. A. (1996). Positive illusion and coping with adversity. *Journal of Personality*, 64, 873-898.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2.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ix, A. P., & Frazier, P. A. (1998). The use of religious coping during stressful life events: Main effects, moderation, and medi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411-422.
- Tobin, D. L., Molteni, A. L., & Elin, M. R. (1995). Early trauma, dissociation, and late onset in the eating disord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 305 - 308.
- Van Der Kolk, B. A., Hostenler, A., Herron, N., & Fisler, R. E. (1994). Trauma and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7, 715-730.
- Walsh, F. (1999).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Walsh F(Ed.), *Spiritual Resource in Family Therapy* (pp. 3-27). New York: Guilford.
- Watlington, C. G., & Murphy, C. M. (2006). The roles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among African American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7), 837-857.
- Witvliet, C. V., Phipps, K. A., Feldman, M. E., & Beckham, J. C. (2004). Posttraumatic mental and physical health correlates of forgiveness and religious coping in military veteran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3), 269-273.
- Wortman, J. H., & Park, C. L. (2008).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adjustment following bereavement: An integrative review. *Death Studies*, 32, 703-736.
- Yehuda R, Kahana B, Schmeidler J, Southwick SM, Wilson S, & Giller EL. (2005). Impact of cumulative lifetime trauma and recent stress on curren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holocaust survivo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 1815-1818.

ABSTRACT

The Isaac & Joseph Story as a Model for Posttraumatic Growth

Mi Kyung Kim(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about the spiritual growth and the transformed appearance as the result of posttraumatic growth recovered from a dramatic crisis in the lif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the cases of some figures in the Bible so as to find out how the personal faith and his/her religion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s/her psychological shock and his/her posttraumatic growth after experiencing a trauma. Especially, through some real examples of people survived from the trauma crisis of death, this study examines how a man gets rich spiritual insight and maturation after meeting the God at the critical and challenging time of his/her life. As the Bible dynamically describes the dramatic ups and downs of tremendous figures, it is satisfactorily met as the experimental cases for this study. In the posttraumatic growth, the spiritual growth is very important as much as physical and psychological growth. So Christian counseling should help the client suffering from his/her trauma to form the relationship with the God by their spiritually growing through the positive spiritual coping.

Key Words: trauma, posttraumatic growth(PTG), spiritual growth, transformation, positive spiritual coping

